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瑞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冠岳靈峯 뒤덮은 서울大人波

滿山紅葉으로 곱게 물들여진 冠岳의 절경아래 펼쳐진 '90登山大會, 사진 ① 목적지 樹木園에서 점심과 여흥을 즐기고 있는 同門 가족들, ② 길게 줄을 이으며 冠岳山을 오르고 있는 山行대렬, ③ 서울大人の 잔치에 동참하게 된 어린이들은 『나도 장차 서울大生이 되겠다』고 다짐.

冠岳春秋

올해도 지난 10월 21일 母校 校紀念 冠岳大會를 가졌다. 구를 하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3세대 冠岳 캠퍼스 正門으로 모여들어서 9시 正刻 先頭의 깃발을 따라 제1진이 출발을 했다. 공기도 맑고 마루도 맑은데 발걸음도 가볍게 보이게 되니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듯하다. 이윽고 가파른 고개를 올라서니 峰巒 眼界가 확 트인다. 푸른 숲, 붉은 단풍, 이어지는 봉우리 줄기가 파란 하늘 밑에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진다.

주에 飲料水도 절여져 있다. 맛과 더불어 고깃집이 연방으로 운반된다. 도시락에 반찬도 펼쳐진다. 점심이 무르익는다. 시가. 지루. 모락. 중상. 모두 설 땅을 밟고, 오지 해탈로 爽快한 웃음을 지어 바로 우리가 한시 그리던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랴. 밑에도 뒤에 도 깔린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가린 것도 없는 天眞이 爛漫한 이런 경치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朝聞道면 夕死라도 가능한 깨달음의 경지. 愉悅의 境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해탈 수 없는 큰 힘의 源泉이기도 하다.

가을 登山大會

몇 번 왔던 冠岳의 절경아래 펼쳐진 '90登山大會, 사진 ① 목적지 樹木園에서 점심과 여흥을 즐기고 있는 同門 가족들, ② 길게 줄을 이으며 冠岳山을 오르고 있는 山行대렬, ③ 서울大人の 잔치에 동참하게 된 어린이들은 『나도 장차 서울大生이 되겠다』고 다짐.

우리는 3월달에 定期總會를 열어 同窓會의 한 해의 살림살이를 點檢하고 새해를 設計하며, 가을에는 10월에 이렇게 冠岳山이 터져라고 서울大 家族들이 모여 우리를 個人과 家族의 健康을 다지고 母校의 發展과 나라의 隆盛을 祈願한다. 봄철의 定期總會 한 해를 설계하고 가을의 開校紀念 登山으로 健康을 다져

— 보내실곳: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大學校同窓會 會報編輯室
— 보내실때는 졸업년도·학과·성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南加州・뉴욕 등 美 5개地域會長本會 방문

의 유대강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모교 추천으로 개교 44주년 기념행사 참사차 귀국·모처럼 동창회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된 이들은 그곳 소재 동문들의 그화를 전하면서 아직은 해외지부의 활동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본부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李聖秀상임부회장, 吳寅洙사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회동에서 崔 회장은 본부 동창회의 현황을 설명한후 해외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

한편 崔회장은 이날 오후 6시 리 베라호텔로 해외지부 회장을 초청, 만찬을 베풀고 支部旗와 새로 발간된 회원명부 그리고 물로 고급 洋服地 1벌을

다. 그날 저녁 8시 30분

單大同窓

「재미」

藥大

◇ 海外支部 회장들이 同窓會館에서 崔主編회장과 본·支部간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海外支部 회장들이 同窓會館에서 崔主編회장과 本・支部간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네팔 히말라야 등반

齒大산악회알프스여행도

[illegible]

單大同窓會行事 풍성

「재미있는 모임」 위해 고심한 흔적

한편 崔 회장은 이에 앞
서 13일 오후 6시 리
베라호텔로 해외지부 회
장을 초청, 만찬을 베풀
고 支部旗와 새로 받은
된 회원증부, 그리고 선
물로, 그리고 洋服地 1벌
화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
다.

藥大

藥大同窓會(회장 韓炳
 승)는 지난 10월14일공
 참회를 겸한 제10회(동
 창)의 날 특제 연과 환영
 퍼스 야회를말에서 5
 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
 이 참석한 가운데 심형
 리에 개최했다.

가치며 친목과 우의를 굳
 제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
 해 하모니카회는 김라 T
 의 V 대를 기증했고 그
 동문들이 기증한 그
 을 합친하여 행사를 더
 축하연회를 가졌다.

看護學科同窓會(회장 楊
 恩淑)는 지난 10월12일
 오후 호임교수 회관에서 동
 문 50여명의 참석하 가
 우대 김영임·신희선 등
 의 박사학위를 수여·발표된

看護學科

[illegible]

3회 耳順 테니스大會를 마치고

— 馬 景 錫 (48년工大卒・뉴텍社長)

가나서 기권함으로써 영
예의 우호(鮮于李朝
에 돌아와 있다.

예선 3세트, 점선
에서 3세트를 뛰어 피
로가 결쳐서 만구선(萬
구선)이라 하는 바이다. 이
만구선(萬구선)이라 하고
자부하는 耳順會員으로서
엘코마드집이다. 허나 신
영(永靈)이라 하는 전술(戰術)
해서 몸사기로 한 19
15년 12월 25일 영(永靈)은
세트를 지른 뒤였다. 이
사실을 주지하고 이번
회에 전제(全制) 6세트를
를 완(完)할 수 있는 체
합(合)에 전(全)마하노라 한다.

다함 3세트를 뛰고 3
월 1일 3세트를 뛰었다.

大學院

大學院同窓會(회장 金道相)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4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막식과 사축하모임을 개최했다.

本會 崔主編 회장을 비롯, 金完圭 총장, 金榮國 부총장, 내외구인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김희정 이사장으로 새로 비상위원을 취임한 하동민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축하모임을 베풀었다.

保健大院

◇ 약대 「동창의 날」 축제 개최식 광경



保健大學院同窓會(회장 金大奎)는 지난 9월 1일 오후 3시 디난홀에서 90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업보고회와 재정보고회 그리고 회계감사보고회 등 3개 회의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이사회는 회계감사보고회를 마지막으로 90년도 정기총회를 12월 6일 오후 6시 산실대홀에서 동창회당원 100명 이상을 초청하여 개최했다.

母校 개교기념행사
참석차 일시 歸國한

美5개 지부 同窓會長

인터뷰



朴允洙 < 52년 文理大卒 >
워싱턴회장

Applied Research & Technology
Directorate Office of Naval
Research Arlington, VA 22217
USA

모교지원방안 강구할터

『이번 모교방문을 통해 모교에서 바라
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
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
이 과제』라며 朴允洙(52년 文理大卒)워
싱턴지부회장은 기금마련을 위해「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전
한다

이밖에 미국내에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타지부와도 상호연락을 통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在美同窓
會들을 연합,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도 추
진할 계획이다

『祖國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정도 해
소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교에 대한 지
원방안도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다각적
인 연구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야겠지요』

이와함께 朴동문은 동문들간의 잦은 만
남으로 異國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相扶相助의 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덧붙인다

- ◎ 모교 개교 44주년과 발전장기계획의 활성화
- ◎ 에 때맞춰 본회 美洲지부 회장들이 모교 초청
- ◎ 으로 지난달 12일 고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 ◎ 16일까지 모교 호암생활관에 머물면서 그간
- ◎ 말로만 전해들던 모교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
- ◎ 하고, 국내의 동문들이 어떻게 동창회를 발전
- ◎ 시켜 왔는가를 두루 살펴보았다. 이들의 방문
- ◎ 소감을 간략하나마 소개한다.



◇ 동창회관 앞에서 기념촬영



陳奉日 < 56년 工大卒 >
뉴욕회장

142-05 Roosevelt Ave. #326
Flushing, New York 11354 USA

동창회
本部발전
돌보여

처음으로 실시된 모교방문 행사로 서울
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재확인하게 되었
다는 陳奉日(56년 工大卒) 뉴욕支部會長
은 다소 침체돼 있는 同支部에 생기를 불
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곳에 와보니 모교의 발전상 뿐 아
니라 동창회본부의 활약상이 단연 돋보여
가슴 뿌듯하다』며 막강한 힘을 지닌 본
부동창회와 꺾이지 않는 유대관계를 형성,
美洲전역의 동창회들도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또한 陳동문은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서 온세계에 흩어져 있는 서울大
同門들이 한 곳에 모여 높은 기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이
포부』라며 자신에 넘치는 표정이다

이밖에 11월에 있을 예정인 본회 임원
진들의 미주지역 방문을 크게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이며 새 활기가 충만해질 것
으로 기대했다



孫秀雄 < 64년 獸醫大卒 >
남가주회장

1414 S. Azusa Ave.
West Covina, CA 91791 USA

4천여
會員모으려
支部

『졸업한 후 26년만에 처음 방문한 모
교가 놀라게 반전돼 있어 매우 감격스러
웠습니다』 南加州支部 孫秀雄(64년 獸
醫大卒) 회장의 첫마디다

美洲지역 동창회중 가장 큰 규모로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가주지부는
지난 76년에 창립되어 총 4천여명의 회
원을 보유하고 있다

孫동문은 『동창회 활동은 우선 동문간의
친목도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 기본생각』이라며 『연초 신년하례회
를 위시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音樂會,
골프대회 개최와 동문가족야유회 등 다양
한 행사를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한다』고 소개 특히 올해의 신
년하례회때는 劉基天전임총장님을 모셔 원
로교수에 대한 師恩의 情도 잊고 있다

한편 孫동문은 내년 신년하례회때 本會
의 崔主鎬회장과 母校의 趙完圭총장을 초
청할 계획이라며 이는 곧 남가주동문들의
사기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裴永燮 < 58년 醫大卒 >
시카고회장

27 Cambrige DR., OAK BROOK,
IL 60521 USA

66년 渡美, 현재 개업의로 있는 裴동문이 이끄는
시카고지부는 4백여명의 회원이 있다 특히 시카고
지부는 美중서부지구의 교민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는데 裴동문은 『앞으로 미주지역에
서울대 전체동문회를 결성하는데 이번 방문이 큰 자
극이 될 것 같다』면서 『모교총장과 동창회장께 감
사드린다』고, 현재 시카고 일원에 교민 5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 기관장을 비롯한 지도급 교민 대부분
모교출신이지만 의외로 통합이 힘들었는데 세계적인

교민자녀 장학사업등 활발

대학으로 성장한 모교의 位相에 맞추어 미주지역의
동문들도 보다 결속해야 할 것이라는 裴동문은 미
주 총동창회사무실의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한편 모교 발전장기계획에 재정·자료면에서 힘닿
는데까지 협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盧寬澤모
교병원장과는 해군 군의관시절 같이 근무하기도 했
다는 裴동문은 부인 김정영여사와의 사이에 아들 3
형제로 가족 모두 의학전공이기도 하다



林承快 < 70년 文理大卒 >
샌프란시스코회장

679 BRYANT STREET, P.O.
BOX 77250 SAN FRANCISCO,
CA 94107 USA

5년간
會長말은
열성과

『이번 방문으로 모교가 명실공히 세계
속의 대학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을 느꼈습니다』 모교 방문소감을 이렇
게 밝히는 林동문은 특히 『崔主鎬회장을
중심으로 동창회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활용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번 방문
이 해외 동문들에게 크나큰 자극이 되었
다』고 한다

60년대 文理大 학생회 체육부장을 지냈
당시 학생과장으로 모시고 있던 趙총장님
의 을초 美洲지역 방문이 무척 감명깊었
다는 林동문은 보통 1년 單任으로 끝나
는 지부장직을 이례적으로 5년째 맡아오
고 있는데, 그 자신 『오랫동안 동창회일을
맡다보니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는 만
큼 회원들의 실정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조성에 유리한 점도 있다』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지부의 회원수는 5백
여명에 이르고 매년 5~6회의 정기모임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인 林
英姬여사와 사이에 2女가 있다

祝祭의 자리 빛내다

金品 協贊同門

서울大人の 矜持와 보람을 家族과 함께 興건케 나눈 일요일 한낫. 이 날은 登山大會라기보다 동문과 親知들이 함께 어울려 즐긴 祝祭의 한마당이였다. 흥뜻하고 보람있던 가족동반의 나들이잔치에 참가한 3천 6백여 가족들에게는 오랜동안 印象의인 날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도시락·包裝肉·酒飲料등을 한아름씩 안고 흥뜻해하던 동문들의 表情을 잊을 수 없다. 이 祝祭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 金品으로 協贊해준 同門의 名單을 밝히면서 기록에 남긴다.

崔主鎬



39년 農大卒
本會會長·宇成그룹會長
一金 100만원
洋服地 10벌

朴浚圭



48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國會議員
一金 40만원

金鍾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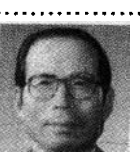
50년 師大
民主自由黨 最高委員
一金 40만원

李季順



52년 師大卒
本會 理事
政務2長官
一金 30만원

洪承丸



54년 法大卒
本會 理事
韓國投資信託 社長
一金 30만원

田永秀



55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住宅銀行長
一金 30만원

閔丙駿



56년 師大卒
本會 理事
斗山食品社 社長
코카콜라 1,000 캔
一金 30만원

南憲祐



56년 大學院卒
本會 理事
韓國貿易協會長
一金 30만원

李祥根



57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美銀行長
一金 30만원

趙南煜



57년 法大卒
本會 副會長
國會議員
一金 40만원

權相澈



35년 師大卒
師大同窓會長
安養專門大學長
一金 30만원

河永基



48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第一生命保險社 社長
진주햄 10세트

朴永夏



50년 醫大卒
本會 理事
乙支病院 理事長
一金 20만원

崔明在



52년 商大
파스퇴르유업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光壽



54년 商大卒
本會 理事
서울信託銀行長
一金 30만원

金正植



56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德電子社 社長
一金 30만원

姜晉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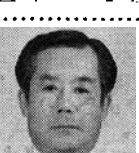
56년 商大卒
本社 理事
롯데햄·우유 社長
에이틴 애플 2,000개

姜晉求



57년 工大卒
本會 理事
三星電子社 會長
칼라 TV 1臺

李昌竣



57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一和 副社長
맥콜·C타임등 1,400캔

金延洙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韓國長期信用銀行長
一金 30만원

尹德善



42년 醫大卒
本會 理事
翰林大 理事長
一金 30만원

金相烈



48년 藥大卒
本會 理事
健尊製藥社 會長
一金 30만원

具平會



51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력기金星商事 會長
一金 40만원

洪性澈



52년 商大
統一院長官
一金 30만원

金善弘



55년 工大卒
本會 副會長
起亞그룹 會長
一金 40만원

李商淳



56년 工大卒
本會 理事
롯데建設社 社長
一金 30만원

高炳佑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證券去來所 理事長
一金 30만원

盧在鳳



57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大統領 秘書室長
一金 30만원

金延洙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韓電線社 社長
一金 30만원

俞彩濬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韓電線社 社長
一金 30만원

許溶



47년 藥大卒
本會 理事
三一製藥社 社長
一金 3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韓三養社 會長
一金 40만원

金泳三



51년 文理大卒
民自黨 代表最高委員
一金 4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
本會 副會長
東亞製藥 會長
포카리스웨트 2,000 캔

智東範



55년 工大卒
本會 理事
韓國製紙社 社長
노트 280 권

崔浩中



56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外務部長官
一金 30만원

金英錫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朝興銀行長
一金 30만원

李憲祖



57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金星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憲祖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韓電線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憲祖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韓電線社 社長
一金 30만원

金昌圭



4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林産業 石油化學副會長
一金 30만원

李禮植



49년 藥大卒
本會 理事
延世製藥社 社長
一金 10만원

白樂皖



51년 醫大卒
本會 副會長
仁濟大 總長
一金 20만원

崔丙億



53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大韓生命保險社 社長
一金 30만원

朴晟容



55년 文理大
本會 理事
錦湖그룹 會長
一金 100만원

柳哲鎬



56년 法大卒
本會 理事
太平洋證券 社長
一金 30만원

金在潤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新韓銀行長
一金 30만원

裴渡



57년 法大卒
本會 理事
東洋폴리에스테르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景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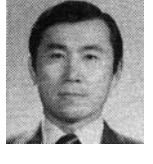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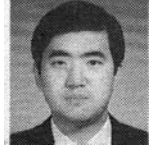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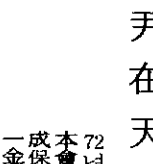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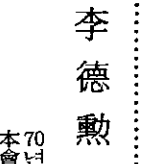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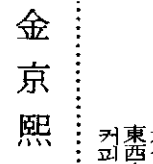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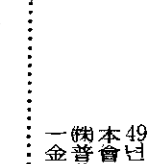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宇重工業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景勲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宇重工業社 社長
一金 30만원

 黃昌基 58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外換銀行長 一金 30만원	 崔洛賢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啓星製紙 副會長 노트 500원	 張世綱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漢陽投資金融 社長 一金 30만원	 李康煥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大韓教育保險 社長 一金 30만원	 崔永喆 58년 文理大卒 文理大同窓會長 勞動部長官 一金 30만원	 安秉華 58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韓國電力公社 社長 一金 3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本會 副會長 韓西光 會長 라코스메T셔츠・쥬리이 화장품등 60점
 朴光普 60년 商大卒 本會 理事 三美綜合特殊鋼 社長 一金 30만원	 尹世榮 60년 法大卒 本會 理事 韓泰榮 會長 一金 30만원	 金仁煥 60년 法大卒 本會 理事 曉星重工業 社長 一金 30만원	 高建 60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서울特別市長 一金 3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 本會 理事 日東製藥 社長 一金 30만원	 公正坤 59년 商大卒 本會 理事 東洋나이론 社長 一金 30만원	 鄭根謨 59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科技處長官 一金 20만원
 崔相曄 61년 法大卒 法制處長 一金 3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 本會 理事 安國火災保險 社長 一金 30만원	 徐立圭 61년 工大卒 本會 理事 佑林콘크리트工業 社長 一金 30만원	 南正鉉 61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字엔지니어링 社長 一金 30만원	 洪在馨 60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輸出入銀行長 一金 30만원	 李相哲 60년 商大卒 本會 理事 國民銀行長 一金 30만원	 安承喆 60년 商大卒 本會 理事 中小企業銀行長 一金 30만원
 安相英 63년 工大卒 本會 理事 釜山直轄市長 一金 20만원	 俞尙根 62년 行政大學院卒 行政大學院同窓會長 明知大 總長 一金 35만원	 許南薰 62년 法大卒 本會 理事 環境處長官 一金 30만원	 趙英吉 62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韓國觀光公社 社長 一金 30만원	 崔秀逸 61년 商大卒 本會 理事 仁川製鐵 社長 一金 30만원	 李承英 61년 商大卒 本會 理事 三星信用卡 社長 一金 30만원	 李洙彬 61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三星生命保險 社長 一金 40만원
 崔秉烈 64년 法大卒 本會 理事 公報處長官 一金 30만원	 李泰熙 64년 法大卒 本會 理事 辯護士 一金 30만원	 李秀正 64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大統領公報首席秘書官 一金 30만원	 曹甲周 63년 商大卒 本會 理事 新松食品 社長 저염간장 450병	 李海旭 63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電氣通信公社 社長 一金 30만원	 申熙澈 63년 商大卒 本會 理事 金剛製靴 社長 紳士靴 5足	 丁璋鉉 63년 法大卒 本會 理事 금강開發産業 社長 一金 30만원
 李孝益 68년 經營大學院卒 經營大學院同窓會長 三益樂器 會長 一金 35만원	 李燦河 67년 經營大學院卒 冠岳會 監事 大英會計法人 代表 一金 30만원	 羅楨煥 66년 師大卒 本會 理事 亞南精密 副會長 카메라2臺,쌍안경5臺	 朴容晟 65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東洋麥酒 副會長 OB맥주 2,400켤	 金恒德 65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油公 社長 一金 30만원	 沈載榮 64년 商大卒 本會 理事 미쉐린타이어 社長 미쉐린타이어 2조	 朴源培 64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洋化學 社長 一金 30만원
			 金泓殖 71년 經營大學院卒 本會 理事 韓금목주 會長 금목주소주 2,000병	 玄在賢 71년 法大卒 本會 理事 東洋그룹 會長 一金 30만원	 徐한샘 69년 師大卒 本會 理事 도서출판 한샘 社長 一金 30만원	 權赫祚 69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東洋精密 社長 電話器 3臺
			 鄭夢準 75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國會議員 一金 40만원	 文大源 75년 商大卒 本會 理事 코리아제록스 社長 一金 30만원	 韓灝鮮 74년 行政大學院卒 本會 理事 農協中央會長 一金 30만원	 金秉麟 71년 環境大學院卒 環境大學院同窓會長 韓美羅寶建設 社長 一金 35만원
			 尹在天 72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成保實業 社長 一金 30만원	 李德勲 70년 商大卒 本會 理事 興農種苗 社長 一金 30만원	 金京熙 61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知識産業社 社長 法哲學等 6점	 嚴基德 49년 農大卒 本會 理事 韓普英社 社長 一金 5만원

登山大會 詳報

오래간만에 모포의 전
경을 접한다는 반카웁
에 행렬이 다소 빌리
기도 했다. 산행을 계
속하면서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한 樹林과
곡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는데 특히 무너지고 개부터 시작되는 수목 위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

출시시켰다』고 말하면서 『매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동창회, 동아리 등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목적지에서 도시락・포장육등을 지급받고 있다.

고 집 보편돼 있었다. 돌돌나무줄(줄) 일련연에 게 개발되지 않은 이 공을 지나면서 서울대 이라는 글자와 자부심을 담으릴 수 있었

다.

와 2시간의 가변은 산행준비와 목적지인 수로위의 도착한 돌돌들은 한결같이 『산행코스가 변한 무리없이아기자기했으며 특히 모포의 전진을 절할 수 있어 돌돌나무줄산대회로써 적절의 장소인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의 수로원 일부에

이 이 산다기 산행이 들은 1천5백여명의 수로원장과의 지리틀잡은 돌돌들은 가족단위로, 혹은 동기를과 함께 점심식사를 즐겼다

적당한 산행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주기로 리던 오후이 시작된다 데 오후에 앞서 崔主鶴(최주호)장은 『1년에한 번 돌돌들과 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푸는 이자리는 뜻깊은 자리이며, 아울러 모교 총장님들을 비롯한 교수 제우께 지닌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

원단』을 썼다.
 이명(朱成憲) (85년음
 대후) 동문의 재치있는
 사후로 여흥 및 결혼
 추점이 시작됐는데 을
 해 동산대회는 20년치
 TV 추상기를 비롯, 양
 복지·전자타자기·자전
 강을 결혼수만도 2백
 여점이나 됐고 특이
 린이들에게는 특별가
 으로 노트가 지급됐
 이단 결혼추첨에 대
 문들의 조건을 쓴 대
 목은(朴基弘) (54년
 대후·대전차산부인과
 원장)·李卿相 (54년
 대후) 부부가 자전가
 에 당첨돼자 부인인
 李동
 부인(형상 서울대
 속인)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해 오던중 이반
 산대회를 만난 후, 합
 해있다고 결산 두손
 주를 데리고 大田에서
 불원천리 올라왔는데
 밖의 신을까지 타게
 된』며 『趙忠純의 사』

◇ 응급환자에 대비,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는 앰블런스.
집행진의 빈틈없는 준비가 돋보인다.

남의 이자리에 착상하
신길에 이 자전거를
정해드리었다"고 해 동
문들의 박수갈채를 받
았다.

이날 행사를 보면서
고 올랐는 기다렸다가
아들내와 손주까지 대
동했다"며 문치영양에
서술대인으로서 소소간
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로선정당에서 주최측이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
다는 것을 의외로 있
었다』 또 『이산파에 전
은넷 모객의 전경을
바라보니 옛생각과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나 스스로 조강이나 공민회 운동을 할
가는 편이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서 모처럼만 동문들과 화합하여 즐겁다
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서울대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리를 느끼게는 더없는 기회였습니다. 이
날도 農機會회원이자 20여쌍이 참가했는데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朴 阪 圭
〈61년 農大卒・농업진흥청〉

진작 同參하는건데...

모듬과는 대화 동기생
인데, 자랑스러운 모교
를 이끌어가는 총장
은 『자년에 참가해

또 鄭昭盛(69년 文理
大卒・단국대학교) 동문
은 『대회진행』이나 등산

도 별반 부리가 없었것 같고요.
 특히 정기총회나 연차 실내행사는 정복차림의 부위가 다소 결장되것 같아 꽤 허 부럽잖이 생겼는데, 우물쭈물 부위가그 함마로 화기애애하다고나 할까요.
 다만 한가지 모를 동향은 행사장 하산 통로들에서는 잘 모이시것 같았는데, 양으로 저를 비롯해서 보다 젊은 동년들이 적다. 한명뿐이던 생각이.



朱 成 惠
〔85년 音大卒・여흥사회자〕

同門간의 情分 재확인

다. 실을 싣을 수 있는

韓蘇주교주역 崔浩中外務長官

韓國과 蘇聯이 1990년 10월 1일 역사적인 條約을 締結한 뒤, 韓蘇수교가 實現되었다. 韓蘇수교는 한국 외교사의 큰 획을 그은 일이다. 이 일로써 한국은 아나톨리아반도와 주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戰後 45년만에 敵對이던 양국이 이제 서로의 국가적 실정을 인정하게 됐고, 이러한 인정의 바탕 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져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韓蘇수교 주역 崔浩中(56년 文理大學) 외무부장관을 만나 한소수교에 따른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韓中수교 전망 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수교 주역으로서 소견—



崔浩中(56년 文理大學) 외무부장관을 만나 한소수교에 따른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韓中수교 전망 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수교 주역으로서 소견—



“外交官 생활중 가장 보람 느껴” 中國과도 時期 앞당기는 일만 남아

『“평안” 북한에 대해 핵안정조치를 보장 받도록 진정한 韓半島의 평화와 가져오는 바탕에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기대한다』 —이런 韓蘇수교는 韓中수교추진을 위해서

崔浩中(56년 文理大學) 외무부장관을 만나 한소수교에 따른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韓中수교 전망 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수교 주역으로서 소견—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李善 (56년 醫大)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16일 부터 중국 北京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尹鍾燦 (57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大卒・母校 醫學教授 10월27일 부터 11월2일까지 28일간 中國에서 열린 제45차 동북지역회의와 22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주총회와 회의를 참석.

▲金建 (52년 文理大學) 本會理事 國會議員 27일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제45차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

[illegible]

年會費내주신분

〔일반 : 9월17일 ~ 10월20일까지〕
이사 : 9월10일 ~ 10월20일까지

人名 및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家政大學

▲李榮善 主席
▲李貞子 事務

◇工科大学

▲金 恒 事務
▲金道然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金相會 事務

연고소속

▲吳華錫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柳仁永 事務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未納동문께서는 이달 말까지 송금하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會費 내역 —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文科大學

▲高允錫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法科大学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金光錫 事務

◇美術大學

▲朴在錫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商科大學

▲康南錫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師範大學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金東東 事務

工大 文理大 등서 많이 내

[illegible]

新刊

▲명청한 정치 낚빠진 경제
- 柳榮俊著 (60년 工大卒
대우전자(주)전무)

방향 감각을 잃고 좌충우돌, 길을 찾지 못하는 작금의 정치 경제를 경제에 관심이 깊은 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21세기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을 나름대로 비판하고 분석을 가한 책.

『이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제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가』 소시민임을 자처하는 저자의 외침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드린다. 또 지도자의 조건을 비롯, 식량정책 조세 및 관세제도 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 제문제를 간결하게 풀어써 일반인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했다. <매일경제신문사판, 4천원>

▲민주주의란 나무는 말을 먹고 자란다.

- 李清洙著 (63년 文理大卒·KBS 해설위원)

85년부터 88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저자가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정치의 흐름을 우리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책. 미국에 있는 동안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대통령선거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관계로 현장감각이 돋보인다.



「자유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美 3대 대통령 제퍼슨의 서간문에 나타난 말을 저자가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 만든 것이 이책의 제목이다. 상대의 논리를 힘이나 피로써 누르려 하지 않고 말로써 대응하는, 타협과 승복의 미국정치풍토를 경험해본 저자가 국내 정치상황이나 언론계에 제시하는 Text로서의 역할을 이책은 하

고 있다 <정문사판, 6천원>

▲현실과 지향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

- 卜鉅一著 (67년 商大卒)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자리를 분명한 어조로 말하기 어려운 풍토에서 이데올로기 지상주의의 허구를 지적, 자신의 글쓰는 입지를 밝혔다. 점에서 이 책은 눈길을 끈다. 이책의 첫 글인 「보수주의의 논객을 기다리며」에서 제안하는 성찰적 보수주의는 곧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유기체적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처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로 요약된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사회에서 「보수적 그룹」으로 불리우는 이들이 실은 반동적 급진주의자라고 단언한다. 결국 『현대에서 자유주의자로 남는것은 쉽지 않다』는 저자의 시각을 출발로 해서 자유는 선택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일련의 사색을 겸허하게 풀어놓는 이 책을 통해 현대 지식의 조심스런 일성을 들을 수 있다 <문학

과 지성사판, 4천 5백원>

▲여자의 城

- 鄭昭盛著 (69년 文理大卒·단국대교수)

작가는 이소설에서 한 중년 여인이 소외된 자신의 인간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곧 이소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병리와 모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아울러 이소설을 이색적인 연애소설로만 읽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40대 여교수와 학생간의 사랑을 통해 조명되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병리를 날카롭게 파헤쳐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개안을 얻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한마디로 『규격화된 인간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에게 함부로 손을 던질 것인가?』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일보사판, 4천원>

公演

▲孔慶蘭독창회

- 11월 8일 예술의 전당

현재 성결교神學大에 출강중인 공경란 (76년 音大卒) 동문은 4번째 갖는 이번 개인독창회를 『성가독창회라면 흔히들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리는데, 이번 공연만큼은 학구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고 선곡했다』며 『신학과 종교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힌다. 예술가곡중에서 聖曲만을 추린 이번 독창회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바흐: 칸타타 Op.51·모차르트: 모테트 165, H. 볼프: 기도 외·나운영: 시편 23 편 외

▲예음클럽 11월 연주회

- 11월 28일 예음홀

시대나 작곡가에 구애받음 없이 꾸준하고도 폭넓은 실내악 세계를 구축해온 예음클럽이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을 선곡, 들려준다. 특히 이번 연주될 곡들은 국내에서 초연되는 것들로 기대가 모아진다.

○韓基世 (75년卒·플루트)·蔡一熙 (77년卒·클라리넷)·

李熙哲 (65년卒·호른)·이정근 (첼로)·안동혁 (더블베이스)

○프로그램: 닐센-세레나데 인바노 5중주·프랑세-목판 5중주·페르조젠베르크-3중주 Op.61 (피아노·오보·호른)

▲金善姬 바이올린독주회

- 11월 19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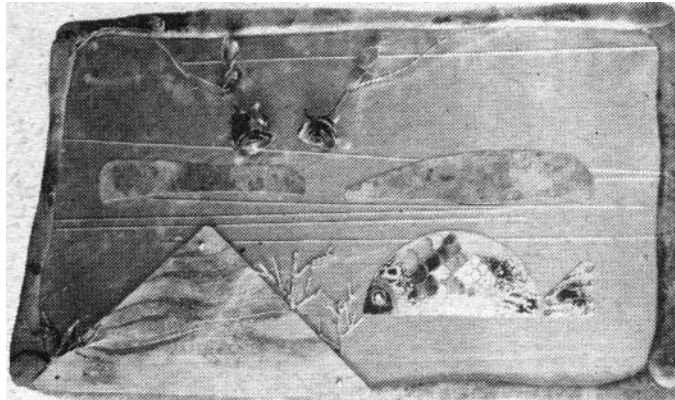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김선희 (81년 音大卒) 동문은 모교 재학시 音大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고, 일찍부터 여러 콩쿠르에 입상한바 있다. 조지아 주립대학원을 거쳐 87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그간 국내외에서 협

展示

▲張潤宇 金屬展

(62년 美大卒·성신女대교수)

장윤우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경력과 6권의 시집을 내고 두차례의 문학상을 수상한 특이한 경력의 화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잃어버린 양심」



1989·無人島·白銅, 銅, Enamel, 銅

연, 독주·실내악연주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음의 세



바金이올린姬

계를 구축해왔다. 귀국후 두번째로 갖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시대별로 다양

시리즈를 통해 병든 도시문명과 인간공해를 그리고 있다. 그의 공예작품에는 한결같이 투명한 詩的 이미지의 메타퍼가 깔려있으며, 그 정제된 형상 가운데서 깊은 詩心을 읽게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섬세함보다는 우직함으로, 우회적이기보다 직설적인 이미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회구하는 美의 유토피아에 이르는 궤적을 볼 수 있다.

한 분위기를 표출하려했다』면서 『특히 전곡을 혼자서 연습해 스스로는 다분히 실험적인 무대가 될것 같다』고. 현대 모교와 중앙대등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C단조 Op.30, No.2·파가니니-라 캄파넬라·E 그리그-소나타 C단조 Op.45 등.

▲朴京沃 첼로독주회

- 11월 9일 호암아트홀

첼리스트 박경옥 (81년 音大卒) 동문은 예원·서울예고·모교 음대를 수석졸업한 귀재로 졸업하던 해에 독일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그후 로터리 장학생으로 美에일대를 거쳐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구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부천시향의 첼로수석으로 있으면서 예원·서울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박동문의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슈만·C 프랑크·루카스포스·백병동등 시대별로 알고루 선별한 레퍼터리로써 그만이 표출하는 첼로의 선율이 펼쳐진다. 피아노는 뉴욕 주립대에서 함께 수학한 Dr. 조나단 스파이비가 맡는다.



◇ 예음클럽은 11월 공연에서 국내초연의 곡들을 선보인다.

해 18년 10월 10일 대정
그 후 2001년 12월 10일
은 찬사를 보냈다. 『한글
후 『이제 새로운 한글
를 찾아온』 『한글을 찾아온』 모
조국의 『한글을 찾아온』 모
라지 않는 『한글을 찾아온』 모
『한글을 찾아온』 모

大學發展간담회
體育대회등
열려

본회 회장단(위원장 박희태, 부위원장 김대환, 감사장영, 회계장 김대환, 총무장 김대환, 기획장 김대환, 인사장 김대환, 재무장 김대환, 운영장 김대환, 감사장 김대환)는 10월 13일 오전 8시 호암교수회관에서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간이 없으므로, 위해소

基礎電力工學 공동연구소도

미주지역 동창회
장단 초청간담회

개표기념회를 맞이하는
미주간지역 화교단체에 추
청된대로 초청장을 받은
모든 화교는 자축일에 동
창회의 장단들, 연세대학교
총장과 교직원들이 모
여 축하를 나누는 수
많은 장이 있을 때에
그날이 가깝다.

大學院진학 軍入隊 제외하면 39.3%

한국의 조상상은 「인물
로」(1997)에 해 하영환
었다.

조영래의 상영으로 「
리」(1997)인 작품시작 때
국의 정치상황과 자신의
인생관과 미래에 유망한
상영 이후로 알려진 바
「비밀한」과 「조영래
행」(1998)의 발표를
연에 내걸었다.

잠룡 방곡市長
모교 講演會 盛況